



타협하지 않는

작가의 언어적 명징성과 완벽성

글·왕은철

남아프리카 출신 소설가인 존 쿣시(J.M. Coetzee)가
지난 10월 2일,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독자들은, 그게 얼마나 같지는 모르지만, 쿣시가 누구이며 어떤 작품을 썼는가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들도 그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의 소설을 읽고, 또 뭔가를 쓰게 될지 모른다. 지금부터 쿣시의 이름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명칭이 따라다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와 같이 비사교적인 사람에게는 특히 그러할 것이다. 쿣시는 노벨상 수상소식이 전해지기 몇 달 전에 발표한 그의 여덟 번째 소설 〈엘리자베스 코스텔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들이 상을 주는 책들은 읽혀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요. 정당한 이유에서 그러하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부과하는 기억의 짐에는 어떤 한계가 있어야 하오.” 이것은 물론 작품 속에 나오는 말이며 전적으로 쿣시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가 지금까지 상업적인 문학상 시상식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그는 부커상을 세계 최초로 2회 수상했지만 두 번 다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을 감안하면, 그의 의중이 다분히 실린 말이 아닐 수 없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글이라는 게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인데, 문학상은 그걸 제한해 버려 후대의 독자들에게 “기억의 짐”을 지운다는 논리다. 쿣시가 지난 10월 14일에 내게 보낸 이메일도 비슷한 맥락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노벨상 수상을 아직도 “소화하려고(digest) 애쓰고 있으며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마다하지 않았을 테지만, 쿣시는 그 호들갑스러움이 힘들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그는 늘 그랬듯이, 인터뷰를 일체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가 노벨상을 탄 지 약 일주일 후, 내게 이메일을 보내 그의 소설들을 번역하고 논문들을 썼다는 다소 웅색한 이유로 내가 몸살을 앓았던 걸 위로해 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내가 쿣시를 만난 건 케이프타운
대학 영문과의 객원교수로 있을 때였다.

첫해는 학술진흥재단의 해외과건교수로, 이듬해는 케이프타운대학의 펠로우 2년(1998~1999)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다. 쿣시의 소설을 대학에서 강의한 적이 있던 나는 저자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그의 소설과 남아프리카 문학을 연구하고 싶어 그곳을 택했다. 이런 내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전해졌던지,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기로 유명한 쿣시는 인터뷰를 하자는 나의 제의에 순순히 응해줬다. 그것은 그의 동료교수들조차 놀라워했던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는 워낙 과묵한 사람이어서, 얘기는 주로 내가 했다.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의 소설에 관해 내가 생각하는 바를 주절주절 얘기했고, 그는 가끔 토를 달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다. 그런 만남이 간간이 이어지다가 나는 그의 소설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 그의 소설을 번역하기로 결심했다.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의 연구실이 내 연구실에서 몇 발자국 안 되는 곳에 있어서 쉽게 도움을 청했고, 그가 시카고대학에 가 있을 때는 이메일로 그렇게 했다._____컷시의 노벨상 수상소식이 전해진 후, 매사추세츠 스미스대학의 미첼 고라Michael Gorra 교수는 스웨덴 한림원의 이번 결정을 가리켜 “더 좋은 작가를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고라는 컷시가 1999년, <추락>으로 두 번째 부커상을 수상했을 당시,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부커상을 2회 수상한 것은 이 작가가 이 소설에서 성취한 바를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고 극찬했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컷시 소설의 어떤 점이 고라 교수를 비롯한 세계의 내노라하는 학자들로부터 찬사를 끌어내는 것일까.

그 것은 소설이라는 장르에 사유를 담아내는
컷시의 지적 능력, 사유의 깊이.

심리적인 통찰력이 엿보이는 날카롭고 수려한 문장, 빼어난 형식미, 윤리성 및 정치성, 식민주의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 현대이론과의 대화적 관계, 도스토예프스키, 카프카, 베크트 등과 같은 위대한 작가들과의 상호 텍스트적 관계(이것은 컷시의 모든 소설이 예외 없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반리얼리즘 소설을 통해 역사적 리얼리티를 포착해 내는 능력, 미니멀리즘에 가까우면서도 수많은 것들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관념적 내러티브의 의미망 등이 그의 소설들을 탄탄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_____또한 그것은, 컷시의 소설을 읽고 “얼음 깨는 도끼ice-axe로 얻어맞은 느낌을 받았다”고 최근의 신문기고에서 술회한 바 있는 보이드 톤킨Boyd Tonkin의 말처럼, 컷시가 “이 시대의 작가들 중 가장 타협을 하지 않는 작가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분명하고 가장 용감한 작가들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컷시는 예술의 기능craft이 “타자, 즉 틈, 도치된 것, 아래쪽, 베일에 가려진 것, 어두운 것, 묻힌 것, 여성적인 것, 타자성 등을 읽어내는 데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역사가 드리운 암울하고 음산한 그늘을 것처럼 타협하지 않고 응시하며 그것을 언어화하는 작가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그런 점에서 그는 “용감한” 작가이다. 우리는 자칫, 인간의 역사를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이고, 때로는 사회가 그걸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컷시는 그러한 감상이나 낭만이 들어설 여지를 주지 않는다. 카프카에게서 낙관적인 비전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듯, 컷시에게서 낙관이나 단순한 긍정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애당초 무리이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어둡고 음산할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두움과 음산함과 비정함이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유례가 없을 정도의 언어적 명징성과 완벽성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이다. 그는 오색영롱한 무지개를 그려내는 낭만적인 작가가 아니라, 그 무지개 뒤에 도사린 과거가 현재에 드리우는 그림자를 언어를 통해 응시하는 작가인 것이다.

예 술 작 품 은 _____
시 대 에 따 라 바 껴 수 있 는 _____

가변적이고 비정한 비평의 잣대를 통과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이다. 비평의 잣대가 아무리 까다롭고 비정한 것이라 해도, 컷시의 소설들은 후대에게 살아남아, 스웨덴 한림원이 말한 바대로, ‘끊임없이 읽히고 논의되는’ ‘인류문화의 유산’이 될 것이다. 컷시는 그만큼 뛰어난 작가이다. ■■

이 글을 쓴 왕은철은 전북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번역과 문학평론을 하고 있다. 그는 전북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조셉 콘라드의 소설 연구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케이프타운대학 객원교수와 펠로를 역임했다. 역서로 <레그타임> <즐라타 일기> <내 영혼의 밤> <콘라드> <전기> <거짓의 날들> <한톨의 밀알> <에마른 계절> <페테르부르크의 대가> <추락> <야만인을 기다리며> 등이 있다.